

“마약 없는 사회, 과학의 힘으로 정의를 밝힌다”

정희선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분석해 완전범죄를 막아내는 것이 과학수사의 매력이다.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은 과연 살인인가, 사고인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김길태 사건, 천안함 사건의 중요한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를 밝혀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이하 국과수) 원장이었던 정희선 박사. 그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있다.

“1995년 11월 서울 흥은동 모 호텔 객실에서 김성재씨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팔에 주사 바늘이 있어 당연히 마약 중독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검출되는 마약이 없었어요. 결국 13만 화합물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로 실험해 봤고 마침내 동일한 물질을 찾아냈죠. 동물 마취제였죠.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인해 180도로 바뀌어 다시 수사가 진행됐죠.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과학의 힘, 국과수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죠.”

정 박사는 대학 3학년 때 국과수 소장의 강연을 감명 깊게 듣고 대학 졸업 후 34년간 국과수에서 근무했다. 당시 국과수는 크게 인기 있는 직업군이 아니었다. 죽은 사람을 부검하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런데 약대출신 여자가 입사한다고 하니 다들 놀랐다. 결국 그는 국과수 최초 여성 원장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국제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돼 종신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 또 2014년부터는 전 세계 마약, 약물물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국제법독성학회’에서 아시아에서는 최초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원장으로서 그동안 배웠던 다양한 연구영역을 바탕으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 박사는 마약 및 약물중독 전문가로서 9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으로 역임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신종마약, 유엔이 컨트롤 타워로서 국제적 규제 필요

정 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이사장으로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마약관련 업무에 집중했다. 또 소변을 통해 마약을 검출하는 방법 등을 개발하여 마약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가 개발한 소변을 통한 마약 검출법은 획기적이었다. 1980년대 후반 마약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마약판매업자가 수출이 막히자 내수로 풀기 시작했고 일본과 가장 가까운 부산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부산 서면에서 마약 복용이

의심되는 이들의 소변을 채취해 매일 비행기로 국과수로 배달했다. 하루에 몇 십 건씩 실험을 하고 마약 복용여부를 판단했던 것 같다고 회상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신종마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신종마약종류가 유엔에 보고된 것만 해도 644종이다. 신종마약은 디자이너 드럭(designer drug)으로 화학물질에 화학구조식을 바꾸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낸다. 신종마약의 가장 큰 문제는 화학구조를 바꾸어 만들기 때문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알아낼 수 없어 위험성이 더 크다. 부작용을 알아내려면 연구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부작용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박사는 신종마약에 따른 규제도 나라마다 달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독성여부를 판단해 마약으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 국제우편, SNS를 통해 비밀리에 국내로 유통이 되어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제는 유엔에서 국제적 컨트롤타워로서 신종마약에 대한 일정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종마약을 규제하려면 유엔도 과학적인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유엔도 국제법독성학회와 함께 일을 하자고 프러포즈하고 있습니다. 국제법독성학회는 전 세계 109개국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식 회원은 2000여 명이죠. 회원 수는 적지만 각 나라의 FBI, 국과수 등 마약류 및 독성 전문가들이 회원 구성원으로 파워는 막강합니다.”

회장인 정 박사를 포함해 국제법독성학회 보드 멤버 8명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정 박사는 아시아 최초 회장이자 보드멤버로 포함된 것도 처음이다.

아이를 위한 과학수사박물관을 만들고 싶다

정 박사는 또 다른 과제도 진행 중이다.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이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약물 등 중독물질을 먹고 응급실에 오는 환자에 대해 어떤 물질을 투여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환자의 혈액과 소변을 분석해 3시간 이내 어떤 약물을 투약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중 약물중독 환자가 많습니다. 최근 약물이 독성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17시간 방치되다 아이가 죽게 된 사건이



정희선

숙명여자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미국 LA 경찰국 범죄연구소 연수
 미국 Ohio주 클리블랜드 검사관 사무소 연수
 영국 런던대 킹스칼리지 박사후 연수
 (전) 제 11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초대원장
 (전) 숙명여대 약학대 겸임교수
 (전) 국제법과학회 (IAFS) 회장
 대영제국지휘관 훈장 (CBE) 수훈
 (현) 국제법독성학회 (TIAFT) 회장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병원에서 약물검출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국민의 보건 향상과 생명연장에 기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과수를 떠나도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행복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어 너무 뿌듯합니다.”

정 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약물오남용교육, 중독재활센터 등 다양한 예방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는 마약투약자의 단약을 위한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며 더 나아가 약사가 직접 진행했던 약물오남용 교육을 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여

사회적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하나의 꿈을 꾸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과학수사박물관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과학을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를 알려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밝혀내는 과학수사 체험도 해보게 해주고 싶어서다. 그는 국제 행사 때마다 한복을 입고 다니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수사기법 등을 전파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